

‘광주 예술의 보고’ 양림동서 펼쳐지는 인문학 축제

남구문화원, 31일까지 ‘굿모닝 양림’ 근대유산 체험·정크아트·미술관 투어 박남준 시인 등 참여 ‘문학 콘서트’도

정율성, 김현승 등 광주를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터를 잡고 활동한 ‘양림동’은 광주 예술의 보고다.

양림동은 팽귄마을 등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이 자리해 많은 이들에게 문화와 힐링의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전통 가옥인 이장우, 최승효 가옥을 비롯해 오웬기념각, 515갤러리 등 역사, 종교, 문화를 아우르는 광주의 유산을 품고 있는 ‘문화 허브’다.

광주시 남구문화원이 공연과 전시, 문학, 체험프로그램 등이 어우러진 인문학 축제 ‘제12회 굿모닝 양림’을 선보이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먼저 근대문화유산 체험과 정크아트, 미술관 도슨트 투어 등 ‘지역 문화예술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 근대역사문화마을 양림동에 거점을 둔 정율성, 조아라 등을 인문학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총 40가지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공식 개막(20일) 행사에 앞서 16일부터 양림동 일원에서 ‘양림문화인물전’이 열리고 있다. 전시 일련으로 열리는 ‘양림의 흔적’전은 공예거리 율타리에서 볼 수 있다. 양림미술관 1층에서 펼쳐지고 있는 ‘양림동의 화가들’은 한국 수채화의 선구자 배동신, 전통문화의 ‘백’을 이어가는 이강하 등의 작품세계를 보여준다. 또 이이남스튜디오 ‘미디어아트 신세계’와 아트폴리곤에서 진행되는 ‘연석산 미술관 교류전’도 즐길거리다.

20일(오후 6시 30분) 열리는 개막식 무대에는 양림오거리 주무대에서 ‘양림에 뜨는 4개의 별’으로 스텔라라는 이름으로 국경환, 윤하나, 조재경, 김선



지난 굿모닝양림 행사에서 푸른길 앙상블이 공연을 선보이는 장면. <굿모닝 양림 제공>

희가 콰르텟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어 공개방송 ‘정오의 희망곡’에서는 양림오거리 주무대에서 오후 7시에 펼쳐지는데 방송인 홍경민, 김형중과 닥펍스, 고유진 등을 만날 수 있다.

21일에는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는 세 가지 행사가 차례로 펼쳐진다. 전시와 시낭독을 곁들인 ‘양림의 그림과 시’는 오후 2시 공예거리 야외광장에서 진행된다. 재능기부협회, 담쟁이시낭송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또 ‘7080 추억의 가을연주’는 같은 장소에서 오후 3시에 열린다.

‘통기타 추억을 노래하다’라는 제목으로 박하성, 유미랑, 김종민 등의 통기타 공연도 예정(오후 4시)돼 있다. 공예거리 야외광장.

오후 7시에는 ‘팽귄마을 공예거리 음악회’도 볼 수 있다. 팽귄마을 내 조성돼 있는 공예거리는 수공예품 등을 전시·판매하는 소규모 공간이다. 재즈밴드 양리

머스, 팸파라 팀 빅밴드 싱어즈, 가수 진이랑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인문학 콘서트도 펼쳐진다. 20일 양림동행 정복지센터 지하공연장에는 박문숙 가수, 나희덕 시인이 무대에 오르고 21일 박남준 시인, 27일 선진기 교수도 출연한다. 이외 근대의상체험 프로그램은 21일(오전 11시) 청년창작소에서 펼쳐진다. 미술관 도슨트 투어와 굿모닝 양림 감성그네 등 상설 프로그램도 눈길을 끈다.

한편 남구문화원과 굿모닝양림행사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2년간 양림동 문화유산, 예술자원을 알린다는 목적에서 열리고 있다.

남구 관계자는 “풍격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광주 시민들의 문화적 삶이 더욱 윤택하도록 굿모닝 양림 축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생명의 숨소리’

바느질로 한땀한땀 ‘내성천의 친구들’

지울스님 작품전...31일까지 갤러리+기역

지울스님은 몇 해 전 천성산 터널 건설을 반대하며 단식을 했던 주인공이다. 도롱뇽이라는 작은 미물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보존의 당위 등을 강조했다.

스님은 지난 13년 간 대강 사업 수몰지인 내성천에서 그렇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환경운동을 펼쳐왔다.

환경운동을 주제로 지울스님이 지난 13년 동안 수놓은 바느질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갤러리+기역(백서로 179, 2층)은 오는 31일까지 ‘내성천의 친구들’을 주제로 전시를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도롱뇽, 흰수마자, 맥활새, 수달 등 내성천을 터전으로 살아온 여러 생명들이 수놓아져 있다. 각기 생명들은 일상에서는 자주 접할 수 없지만 내성천 생태

계를 구성하는 중요한 ‘친구들’이다.

작품들은 ‘힘내라 내성천’, ‘땀보다 습지’, ‘반갑다, 제비야’ 등 지울스님이 시기별로 외친 목소리가 담겨 있다. 작품의 재료는 내성천의 수몰된 마을에서 구한 저고리 치마 이불 등 누군가 쓰고 남긴 것들을 활용했다.

한편 바느질 작가인 정연두는 “내성천을 수놓은 제비를 만났습니다. 한땀 한땀 바느질을 하며 지속 가능한 펼침막을 만든 지울스님을 만났습니다”라며 “스님의 단식은 우리 자신을 지키려는 싸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연결된 모든 생명을 지키려는 호소이고, 공명이었습니다. 지금 내성천에 남아 온 제비도 우리이고 다른 모든 생명입니다”라고 의미를 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러시아 문화 정서 깃든 멜로디...라흐마니노프를 만나다

탄생 150주년 특별 연주회

오늘 전남대 민주마루

러시아계 미국인 작곡가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1873-1943) 탄생 15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특별 연주회.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광주피아노아카데미(회장 문현숙)는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 기념 특별 연주회’를 오는 18일(오후 7시 30분)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연다.

라흐마니노프는 19-20세기 활동한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다. 러시아 특유의 문화적 정서를 담아내는 그는 후기 낭만주의 정점에 서있다는 평을 받아 왔다.

그의 대표적인 피아노 협주곡 중 하나인 ‘협주곡 2번’이 막을 올린다. 빠른 템포로 강렬하게 전개되는 제3악장 클라이맥스는 전통적 낭만주의의 단절을 선언하며 세기말적 지평을 열어온 ‘후기 낭만주의의 극치’를 느끼게 하기 충분해 보인다. 그가 미국명명 이후 작곡한 말년작 ‘파가니니의 주제에 의한 광시곡’도 들을 수 있



작년 진행한 광주피아노아카데미 창단 30주년 그랜드콘서트. <광주피아노아카데미 제공>

다. 다양한 관현악법과 주제변주, 오케스트레이션, 음악적 구성과 선화 변화 등에 찬찬히 작품을 다.

라흐마니노프 150주기를 맞아 창작 초연곡도 울려 퍼진다. ‘라흐마니노프 현정곡’이 바로 그것. 이번 음악회를 위해 작곡가 한경진(전남대 교수)이 만들었는데, 가사 없는 무언가(無言歌) 형식을 띤다. 종교적 색채를 갖는 러시아 정교음악 특유의 서정과 ‘가사 없음’의 미학이 어우러져, 음악의 여백을 채우며 감상하는 묘미가 있는 작품이다.

피아노 연주는 조민정, 이철민, 김성재가 맡는다. 세 연주자들은 지역 신예인데 각각 전남대, 경희대, 세종대 등에 출강하고 있다. 조민정은 전남대 예술대

음악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석사,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이철민은 한예중 예비학교를 수료한 뒤 예술사를 졸업했으며,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석사 및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했다. 김성재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국립음대, 이탈리아 이볼라 국제피아노 아카데미 등에서 수학했다.

작곡가 한경진은 서울대 음대 작곡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영국 사우스햄턴대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뒤 현재 전남대 예술대 음악대학 교수로 있다.

전석 초대. 광주피아노아카데미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디자인비엔날레서 BTS 피규어 찾아볼까

AI·로봇·3D프린팅 등 호응

‘BTS 피규어’는 디자인 작품일까, 정교한 장난감일까?

광주디자인비엔날레(11월 7일까지)가 열리는 전시장에 가면 전시작 가운데 유독 눈에 띄는 작품들이 있다. 4차 산업기술과 디자인이 융합된 전시콘텐츠들이다.

광주디자인진흥원(원장 송진희)은 17일 “제10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작품 가운데 AI(인공지능)를 비롯해 로봇, 3D프린팅 등 융합된 전시콘텐츠들에 대한 호응이 높다”고 밝혔다.

전시관 초입의 ‘비엔날레의 시작’은 AI기술을 활용한 대표작이다. 총감독 및 각 큐레이터가 30대 모습으로 등장해 전시 구성을 비롯해 4개 테마를 압축적으로 설명한다. 산업용 로봇팔로 퍼포먼스를 연출하는 미디어아트그룹 ‘팀 보이드’의 ‘인공지능 마이크로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전시장에서 볼 수 있는 콜레인의 3D프린팅 작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제공>

팩토리’는 로봇팔이 그린 그래픽 아트를 선보인다. 기술과 예술의 실험적인 시스템을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1전시관의 콜레인은 3D프린팅 기술과 아트, 디자인이 결합된 작품으로 눈길을 끈다. 에스트로 스마일, 로컬마스터즈, 트리코넵 시리즈 등을 출품해 마니아들 인기를 모으고 있다. BTS 피규어를 찾아보는 것은 쓸쓸한 즐거움 가운데 하나다.

맞춤형 안경 전문기업 ‘브리즈’는 라이프스타일관(2전시관)에서 체험형 전시콘텐츠를 선보인다. 관람객이 얼굴 스캔을 체험해볼 수 있도록 3D스캐너가 설

치돼 있으며,스캔된 안면 데이터를 토대로 안경 추천, 가상 피팅까지 경험할 수 있다.

4전시관의 ㈜고스디자인과 ㈜썬드가 출품한 ‘디자인 해부학(4전시관)’은 제품디자인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췄다. 에어 서플레이터 등 제품을 분해해 부품과 케이스, 금형 등에 대해 알 수 있다. 디자인비엔날레에 맞춰 레고브릭과 함께 2023개 미니어처를 회전그네, 테마파크 등으로 꾸며 디자인 작품으로 재탄생한 점이 인상적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상영회 일환으로 서울 인디스페이스에서 상영 예정인 ‘리스트 씬’ 스틸컷. <광주독립영화관 제공>

‘신경쇠약 직전의 극장들’ 연대로 극복

광주독립영화관GIFT, 18~20일 전국 지역극장축전

‘OTT 전성시대’를 맞아 지역 극장과 독립영화관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클리 한 번으로 집에서 영화를 관람하는 편의성은 무시할 수 없지만, 고즈넉한 극장에서 스크린으로 감상하는 작품은 오래 기억에 남는다.

광주독립영화관GIFT(관장 한재섭)가 전국 지역극장축전 ‘신경쇠약 직전의 극장들’을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연다. OTT시대 침체에 들어선 극장들을 ‘신경쇠약’에 걸린 환자에 비유하고, 지역극장 간 연대와 우정으로 극복해보자는 취지다.

행사는 전국 상영회, 라운드테이블, 광주극장영화제 개막식 참석 등으로 구성된다.

전국 상영회는 18일 독립예술극장 신영(강릉)에서 ‘작은 정원’, 인디스페이스(서울)의 ‘리스트 씬’으로 막을 연다. 19일 시네마라운지MM(목포)에서는 ‘그곳에 바라는 분다’ 외 2편, 미림극장(인천)에서 ‘휴가’, 영화의전당(부산)에서 ‘마녀들의 카니발’ 등도 볼 수 있다. 이외 오오극장(대구), 아트시네마(대전)도 참여한다.

이들은 지역 독립예술극장 또는 영화문화 공간으로 영화 상영을 고리로 ‘지역극장 활성화’라는 목소리를 낸다. 1957년 천막극장으로 시작한 인천 미림극장, 2018년 문을 연 시네마라운지MM 등이 대표적이다.

20일(오후 3시)에는 광주독립영화관에서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한다. 송은지 강릉 독립예술극장 사무처장, 원승환 서울인디스페이스 관장, 한국예술영화관협회 최낙용 대표 등이 참석한다

같은 날 오후 7시 개관 88주년을 맞은 광주극장영화제 개막식에 참석, 광주 최고(最古) 단관극장을 둘러보고 영화제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광주독립영화관 한재섭 관장은 “국내외 우수 영화제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주로 상영하는 독립예술영화 전용관들은 서울과 지역의 문화 격차를 줄이는 플랫폼이 되고 있다”며 “독립영화와 지역극장을 매개로 광주에도 예술적 감수성이 꽃피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